

LOCAL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청년이 함께하는 참여형 ‘화순 모델’ 만든다

광양, 장기 체류 관광프로젝트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모집

광양시는 일정 기간 한 지역에 머물며 현지인처럼 살아가는 전남도의 장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 규모는 1~2인으로 구성된 1팀 내외다. 참여자에게는 체류 기간 중 숙박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하루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광양에서 7박 8일 이상 체류할 수 있고, 머무는 동안 경험한 광양관광의 매력을 SNS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18세 이상(광주·전남 거주자 제외)의 SNS 활용 능통자다.

시는 여행작가, 유튜버, 파워블로거 등 SNS 활용 능력이 뛰어난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여행 후기 작성, 광양의 숨은 명소 소개 등의 과제를 부여해 지역 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참가 희망자는 7월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hwa16@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jin@

영암 농특산물 서울서 홍보

영등포·성동구 등 장터 참여

영암군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어울림 장터’, 성동구의 ‘무지개 나눔 장터’에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영암농부남생이마켓 유통사업단으로, 영암의 농특산물의 매력을 알렸다.

영등포구 어울림 장터에서는 파프리카와 초당옥수수, 과일 동절 건조집, 배즙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영등포구민과 만났다.

무지개 나눔 장터에서 성동구민에게는 지원목장의 치즈·요구르트, 도장집의 무화과 동동주·약주·탁주 등 특별한 지역 발효제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두 장터를 찾은 서울시민들은 수도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남도 먹거리를 시음하며 관심을 보였고, 일부 방문객은 현장 구매로 영암 농특산물 홍보에 호응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터 참여를 계기로 꾸준히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우수한 영암 농특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철광 기자 hck1342@

전담부서 구성...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 목표 지역 실정 반영한 홍보 전략·앵커사업 등 개발 예정

화순군이 군정 전반에 청년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이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운영하는 지역에 부여하는 지정 제도다. 지정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군은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청년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선다.

이번에 구성될 기획단은 화순군에 거주

하는 18~4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2일부터 국무조정실 공모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및 유관기관 추천 등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기획단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워크숍,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화순군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앵커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브랜드 및 슬로건 개발, 홍보 전략 수립에도 참여한다.

특히 청년이 제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청년

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청년 주도의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획단 활동은 화순군 청년들락 홈페이지 내 전용 페이지를 통해 활동 일지와 회의록, 구성원 프로필, 활동 영상 등이 아카이빙돼 공유된다. 이를 통해 청년친화도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청년에게는 청년참여 기반 정책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수요조사와 봉사 시간을 발급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군수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친화도시 추진 기획단 운영으로 청년 주도적인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화순군 청년정책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친화도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이 지정된 바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여수시는 최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개 기관·단체와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 COP33 유치·탄소중립 실천 ‘앞장’

시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여수시는 최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개 기관·단체와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의 일상 속 녹색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여수시의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여수시여성단

체협의회 한국부인회 여수시지회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반들이’ 앱 개발사 ㈜다와 등이 동참했으며, 협약서 서명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실천포인트 앱(반들이) 시연 및 시음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개인 텀블러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 △지역 소상공인(카페)과의 상생 문화 정착 등에 적극 협력한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은 탄소중립포인트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음료 당 300원(연간 최대 7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매장은 음료 당 30원(연간 최대 1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 기반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행사 유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시민과 함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이끌어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고흥, 계약심사로 예산 16억 절감

고흥군은 알뜰한 살림살이 행거기로 지방재정 효율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 상반기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총 16억 1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1억원 이상), 용역(5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올해 상반기 총 275건의 사업을

심사했으며,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 분야 122건 11억3700만원, 용역 분야 76건 4억3200만원, 물품 분야 77건 4800만원으로 총 16억17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

함평, 연간 10만달러 수출 MOU 체결

말레이시아 식품박람회서 현지인 입맛 공략

함평군이 동남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해외 농식품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Food & Drinks Malaysia by SIAL 2025’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1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Food & Drinks Malaysia by SIAL 2025 박람회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료 전문 박람회다.

군은 지역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박람회에 참가해 말레이시아 현지 구매자(buyer)와 소비자에게 미니단오박, ABC주스, 조미김 등 함평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MK Studio SIB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유통망을 보유



한 한국 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협약에 따라 연간 10만달러 규모의 ‘함평 ABC주스’를 수입·판매하기로 했다.

이상의 군수는 “이번 박람회 참가와 수출 MOU 체결을 계기로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함평 농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국제 마케팅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완도,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총력전

침수·폭염 피해 최소화

완도군이 여름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소관 부서·관계 기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상습 침수 구역 14개소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16개소, 소하천 87개

소, 급경사지 51개소 등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하수도·우수관로 정비, 배수 펌프장 등 각종 수리시설 점검 등도 실시했다.

군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폭염 대책도 시행한다.

폭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 저감 시설 확대 설치와 취약계층 건강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kr1831@gwangnam.co.kr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ITAMIN HOUSE

VHCME+

특허등록번호 10-1772039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10개
K-낙산균2 200 mg, LactoSpore균 200 mg,
Bifidobacterium 100 mg, 유산균 10 mg
10개(100mg) 10개(100mg) 10개(100mg)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VHCME+
특허등록번호 10-1772039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VHCME+
특허등록번호 10-1772039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VHCME+
특허등록번호 10-1772039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